

청소년 독서 캠페인 인문고전 64선

# 달달한 인문학 독후감 쓰기 모음집



 | 제이이산시청소년재단

# 목 차

## 초등부

- 1. 최우수상 ..... 1
- 2. 우수상 ..... 3
- 3. 참가상 ..... 4

## 중고등부

- 1. 최우수상 ..... 13
- 2. 우수상 ..... 14
- 3. 참가상 ..... 15

## 일반부

- 1. 최우수상 ..... 16
- 2. 우수상 ..... 17
- 3. 참가상 ..... 18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신*겸
----	-----	-----	------------	-----	-----

###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 성장: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읽고

“지금은 딱 80일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거든.”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이 책에서 포그가 혁신 클럽이란 클럽에서 포그가 2만 파운드를 걸고 여행을 시작하는 말이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졌고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삼고 교통이 활발해진 근대 세계사 시대를 다루는 작품이다. 마침 나는 세계사 근대 식민지 개척 시대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차가운 성격의 고독한 신사, 필리어스 포그이다. 포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살아가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런던의 혁신 클럽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게 된다. 포그는 "세계일주를 80일 안에 마칠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전하게 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세계일주를 시작한다. 포그는 하인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한다.

그들은 인도, 홍콩, 일본, 미국 등을 거쳐 가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포그는 예상보다 하루 늦게 런던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가 시간 계산을 잘못 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80일 세계일주에 성공한다. 그 후 그는 인도에서 구한 아우디와 함께 결혼한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직접 배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포그가 인디언의 습격을 받고 기차를 놓치는 등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서 흥미진진해서 좋았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포그가 날짜를 하루 잘못 알고 혁신 클럽으로 바로 들어와 1초 전에 성공한 장면이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포그가 잘못 도착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결국 포그가 성공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이 장면을 보며 나도 포그처럼 도전적인 정신이 갖고 싶어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여행이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차가운 성격의 고독한 신사였지만, 힘들었던 인도 횡단여행을 통해 점차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자신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그는 여행 중 파스파르투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아우디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여행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도박을 이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적 성장과 성찰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의 유사하다. 장발장은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관계를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간다. 포그도 여행을 통해 차갑고 고독한 성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숙해져간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은, 목표를 향한 도전의 중요성과 주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포그는 처음에 여유롭고 냉정하게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을 보이며 변화한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시련과 좌절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여행'은 공간의 이동을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모험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이 글을 마치며 '고진감래'가 떠오른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진정한 기쁨과 성공을 맛볼 수 있으니 포그의 여행처럼, 인생의 길은 순탄치 않지만 도전과 극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작은 한걸음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임*현
----	-----	-----	------------	-----	-----

처음에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제목을 읽고 '난 여행을 제주도밖에 못 가봤는데 세계일주라니?' 라는 생각과 함께 8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림체에 끌렸고, 주변 사람들의 추천도 있어 읽게 되었다. 책 속 시계 그림을 보고 시간을 정확히 다루는 이야기일 것이라 예상했다.

포그는 리폼클럽 사람들과 80일간의 세계여행에 대해 내기를 하고, 파스파르투와 함께 도전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이집트 수에즈, 인도의 뭄바이와 캘커타, 중국과 홍콩, 일본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미국 뉴욕을 거쳐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브라만 승려에게 끌려가는 아우다 부인을 구출하고, 그녀도 여행에 합류하게 된다. 아메리카에서는 인디언의 습격으로 파스파르투와 헤어지지만, 포그의 노력으로 다시 재회해 남은 일정을 함께 마친다. 결국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내기에 졌다고 생각했지만 날짜 계산 실수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마지막에는 아우다 부인과 포그가 결혼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포그가 용기 내어 아우다 부인을 구하고, 여행을 함께하며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모습이 멋졌다. 특히 아메리카에서 인디언의 습격을 받는 장면은 인상 깊었고, 포그가 한 생명이라도 희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이 책은 각 나라의 문화를 세밀하게 잘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겨 더욱 가보고 싶어졌다. 코끼리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이나 실제 장례식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다행히 지금은 없어진 문화라 안심했지만, 만약 내가 아우다 부인이라면 남편의 장례보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탈출했을 것이다.

이 책은 마치 대리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현재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일본, 중국, 태국 같은 근처 국가들이다. 먼 곳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나라에 가고 싶고,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음식을 경험하고 싶다.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한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박*
----	-----	-----	------------	-----	----

'80일간의 세계일주'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들의 내면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이다.

처음 포그는 돈과 시간에 집착하는 냉정한 인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그의 내면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아우다 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간성과 너그러움이 드러나며, 결국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포그의 하인 파스파르투 역시 여행 전과 후가 크게 다르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인이었지만, 긴 여정을 통해 주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키우게 된다. 그의 성격은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두 주인공의 여행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8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여행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여행을 통해 각 나라별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문화를 알아가는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을 배웠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이*정
----	-----	-----	------------	-----	-----

이 책은 제가 3학년 때 매우 재밌게 본 책인데, 이번 독후감 도서이여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가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전 재산을 걸고 80일간의 세계일주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는 인디언의 습격, 바다 위 폭풍우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포그와 그의 동료 장 파스파르투는 서로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세계일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은 필리어스 포그가 거의 전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많은 교훈을 얻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평정심과 도전 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그의 동료인 장 파스파르투는 큰 위험 속에서도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기는 정말 멋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필리어스 포그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이*희
----	-----	-----	------------	-----	-----

과연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 별난 괴짜 포그 경은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고 내기를 합니다. 런던에서 출발해 수에즈, 인도와 콜카타, 홍콩, 일본, 뉴욕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에서 위험에 처한 아우디 부인을 구한 일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모험을 하면서 포그 경은 최후의 승자가 되지만, 세계 일주를 통해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비록 내기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맹*우
----	-----	-----	------------	-----	-----

'80일간의 세계일주'는 포그가 그의 하인과 함께 세계일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우다와 포그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일주를 하면서 포그가 얻은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의 부인 아우다입니다. 집과 클럽만 왔다 갔다 하며 지내던 포그는 여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평생을 함께 할 아주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야말로 이번 여행이 포그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정*영
----	-----	-----	------------	-----	-----

며칠 전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소개할 책을 빌려 오시라고 하셔서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 게시판에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독서감상문 쓰기가 재밌어 보여서 신청했다. 책의 제목은 「80일간의 세계 일주」였다.

책 내용은 괴짜 신사 포그는 클럽 회원들과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놓고 영똥한 내기를 한다. 많은 액수의 상금을 걸고 포그와 새 하인 파스파르투는 험난한 여행길을 오른다. 포그를 영국은행 절도범으로 의심하는 픽스 형사가 포그 일행의 뒤를 쫓게된다.

코끼리를 타고 인도를 횡단하던 포그 일행은 제물로 바쳐져서 화형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구한다. 포그의 하인 파스파르투는 픽스가 형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포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포그 일행은 세계일주를 마치고 영국 땅을 밟았다. 그런데 픽스 형사가 포그를 체포하는 바람에 5분 늦게 도착했다. 동쪽으로 여행을 해서 하루가 남은 것을 파스파르투가 알려줘서 결국 포그가 내기에서 이겼다. 그리고 포그는 아우다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나는 포그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구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도 괴짜 신사 포그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교통수단의 발달이 잘 안 된 시기에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걸고 내기를 하는 용기를 본받고 싶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이*비
----	-----	-----	------------	-----	-----

나는 원래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 책이 눈에 띄었다. 그 책은 바로 《80일 만에 세계일주》였다.

이 책은 쥘 베른이 1872년에 쓴 모험 소설이다. 나는 이 책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주인공이 정말로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그 무모한 도전을 성공하고 났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봤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일. 이런 일을 나는 꼭 해보고 싶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박*환
----	-----	-----	------------	-----	-----

나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80일간의 세계일주」 책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읽었다.

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부족하다. 때문에 필리어스 포그가 하인을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장면이 감명 깊었다.

타인을 무턱대고 의심하는 픽스 형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 친구를 의심했던 일이 떠올랐다. 다시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박*후
----	-----	-----	------------	-----	-----

영국 런던의 포그는 아주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은행가와 건축가들과 모임을 갖다가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내기하게 됩니다.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열기구, 기차,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며 모험을 겪게 됩니다.

도둑으로 몰려 쫓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슬아슬하게 내기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행 중에 우정도 쌓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사랑도 찾게 됩니다. 저도 멋진 여행가가 되어 전 세계를 돌며 멋진 모험을 하고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문	초등부	도서명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성자	김*민
----	-----	-----	------------	-----	-----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읽으며 주인공인 필리어스 포그가 전 재산의 반을 걸고 80일이라는 시간 안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한 게 용감하면서도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포그가 여행해 본 나라중에 이집트가 가장 재미 있을거 같아서 가보고 싶었다.

마지막에 포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80일하고 5분이 지나서 안타까웠는데, 알고 보니 포그는 동쪽으로 지구를 1바퀴 돌면서 경도 1도 마다 4분씩 절약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내기한 80일 3초를 남기고 클럽에 도착한 부분이 가장 재밌었다. 이 장면을 통해 작은 것도 자세히 보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부문	중고등부	도서명	오만과 편견	작성자	최*은
----	------	-----	--------	-----	-----

『오만과 편견-제인오스틴』은 사랑에 서투른 남녀 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서로에게 오해로 시작되는 편견과 작은 허영심으로 펼쳐지는 오만으로 시작해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주변인물들을 통해 질투, 죄책감 등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선을 통해 소설속 인물들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기도, 해결하기도 한다. 나는 오만과 편견을 읽으며 사랑뿐만 아닌 오만, 편견과 나에 대한 고찰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과거의 나는 오만으로 파생되는 생각과 그로인한 편향을 가지고 편견속에서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 이는 인간의 감정인 오만과 편견이 이는 좋은 감정을 이끌기도, 방해하기도 했던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오만과 편견의 두 세상의 화합과 대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표현한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작가가 18세기 중상류층의 배경으로 물질지향적인 세태상과 허위의식을 베넷부인과 같은 인물들로 비추어 결혼의 조건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던것을 비판하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 파악 하며 독서를 더욱 심도있게 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싶다.

부문	중고등부	도서명	오만과 편견	작성자	조*현
----	------	-----	--------	-----	-----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영국, 베넷가의 다섯 자매 중 둘째인 엘리자베스가 주인공인 소설이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오만하고 고상한 태도의 다아시를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다아시 또한 엘리자베스의 지혜와 성격에 매력을 느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이 소설은 사랑, 결혼, 사회적 계급을 주제로 인간 관계의 성숙을 그린 작품이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다아시를 오만한 인물로 여겼지만, 그가 가진 진심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편견을 깨닫는다. 다아시도 엘리자베스를 이해하면서 자아의 변화를 겪는다. 그들의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소설을 통해 나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사랑이란 결국, 타인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그랬듯, 나도 내 안의 오만과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	종고등부	도서명	오만과 편견	작성자	정*한
----	------	-----	--------	-----	-----

저는 이책을 처음 볼땐 시대 배경에 따라 신분에 대한 차별과편견 그리고 남자들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책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책은 사랑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편견과 함이 적절히 섞여 있는 책으로 정말 신명나게 읽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읽으며 어쩌면 저 역시 평소 책을 읽던 지식으로 넌지시 오만하게 그 시대의 책에 대한 편견으로 내용을 유추했다는걸 하지 않았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오만하게 상대방을 평가하고자신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책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어서 이런 "오만과 편견" 들이 사라질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문	일반부	도서명	논어	작성자	김*실
----	-----	-----	----	-----	-----

논어라는 책은 나의 인생에서는 없는 도서라고 생각했다. 다소 어렵고 지루한 제목을 핑계로 한번도 스치지 않았던 책이었다. 이번기회에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읽을수록 무릎을 탁치면서 깊은 탄식을 자아냈다. 왜 이제서야 이 책을 읽었는지 아무도 나에게 추천하지 않았는지 많이 아쉬웠다.

나 역시 남들과 비슷한 아내, 아이들의 엄마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있다. 그와중에 중간중간 나를 짓누르는 다른 사람들의 잣대, 시선, 관심, 비하와 같은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깊은 자괴감에 빠져 바닥을 헤맸던 적이 있었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물기야 이범지" 속이지 말고 말하라,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판단이 그름에도 말하지 않는 것도 남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항상 쉬운 길을 택했던거 같다.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들도 모른척 하기에 나역시 그러했던거 같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에 용기가 부족했던거 같다.

책을 한장 한장 넘기니 나의 인생의 작은 일들이 하나씩 소환되며 그때의 나의 판단이 옳은건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네 아이들이 꼭 이 논어를 읽어 험난한 사춘기의 지뢰밭을 현명하게 지나가길 기대해 본다.

부문	일반부	도서명	논어	작성자	이*형
----	-----	-----	----	-----	-----

내가 논어라는 책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다. 방학 숙제로 논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당시 어린 나에게 이 책의 내용은 와닿지 않았고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논어를 다시 만난 것은 아이들을 육아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였다. 20여 년의 세월을 더 살아왔던 탓일까. 논어의 문장들은 학창 시절 숙제를 위해 읽을 때와 다르게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논어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지금까지 논어와 관련된 책이 3천여 권이나 발간되었다고 하니 오랜 시간 세대를 아울러 논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춘추 시대의 유학자로 예와 악을 정리하여 유학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사상으로 인(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내가 책 속에서 느낀 인이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인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보았는데, 우리는 모두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논어에 유명하고 좋은 구절은 너무나 많지만 나의 마음속에 가장 다가온 구절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였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었다. 하지만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요즘은 남들의 시선과 목소리보다 나의 내면의 모습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논어 책을 곁에 두고 읽으며 노력하다 보면 군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군자의 근처에는 가지 않을까. 인생에 정답은 없다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부문	일반부	도서명	논어	작성자	채*미
----	-----	-----	----	-----	-----

마흔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안 올 거 같았던 나이를 먹게 됐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주변으로 오는 미세한 바람에도 갈대마냥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다. 또 어떠한 새로운 것에 감흥도 없어 진지 오래고, 익숙함이 싫다지만 편한 것을 쫓고 옛날 보던 드라마, 노래만 듣고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늙는 건가 싶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이해 안 됐던 고집이나 모순된 행동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는 나이가 먹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그러한 열정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 이래라저래라 하던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 스스로 실망과 약간의 괴로움이 생길 때가 있었다. 이제는 뭘 하려고 앉아있어도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 하고 더 산만해졌다.

이십대 때 끌어올랐었던 그 것이 이제 보니 열정이었구나 싶다. 이제는 열심히 뭘 가를 하고 싶어도 열심히가 잘 안된다. 그렇다고 무엇하나 나 스스로 나이먹으면 성장한 것도 없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을 때가 있다. 아직도 방황하는 기분이 들었다.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서럽다고 한 것일까 싶어 이때쯤 인생의 조언을 받고 싶었다. 그때 꺼내들어 읽은 게 논어다. 공자는 너무나 유명하고 그의 사상을 담은 책은 읽진 않아도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도 많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읽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읽어보아야지 했는데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읽으면서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어 감사함을 느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건가 싶으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공감가는 내용이 많은데 괜히 고전하는 게 진짜 아니구나하는 것을 읽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다.

논어를 읽다보니 생각치 못 한 처세술이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또 사람보는 법을 인생 선배한테 조언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왜 좀 더 일찍 읽지 않았던 걸까 살짝 후회도 되었지만 지금이라 논어가 더욱 나한테 값지게 읽힌거 같다. 몇 몇 내용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은 티끌이다.

뒤주박죽 혼란스러울 때 읽으면 내 안에서 기준이 생기고 건강한 위아래 순위와 옳고 그름이 잡히게 되는 것을 느꼈다.

책에 나온 말들을 곱씹어 볼 수록 무릎을 탁 치게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오랜만에 즐거운 책을 읽게되어 기뻐다.

부문	일반부	도서명	논어	작성자	권*속
----	-----	-----	----	-----	-----

한번쯤은 <논어>를 읽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손에 닿지 않은 책이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 가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용기내어 접근해 봤다.

<논어>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공자의 대답으로 마무리된다. 아무리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물음에 걸리지 않았다면(스스로 궁금한 것을 밝혀 내도록 그 대답을 절대 들려주지 않음)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을 공자는 깨우치고 이런 교육을 선택한게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대는 좋은 대학에, 20대는 좋은 직장에, 30대는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와의 결혼 등 원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부터 끝까지 정답이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고,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니 그 속에서 무슨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길이 좁고 답답하니 모두가 불행한 것이다.

무언가로 향하는 과정이 편한 길일 수 만은 없으나,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실에, 결과에 실망하고 애써온 과정 또한 그저 "실패"한 길로 보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안타까울 뿐이다.

모두가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은 아마도 실패가 두려워서일텐데, 정해진 길로만 간다면 적어도 중간은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져야할 것이 늘어나고, 높아진 성은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지어올리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어릴때일수록 실패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남들과는 다른 과정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이겨낸다면 그 과정에서 진실된 나를 찾을 거라 믿는다.

쉽 없이 달려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해주고 목표가 사라진듯이 삶의 방향점에 서 있는 내게 큰 깨달음을 준 책이다. 이제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 책을 만난 것은 남은 인생을 위한 나에게 주는 선물임과 동시에 행운이 틀림없다.

부문	일반부	도서명	논어	작성자	김*성
----	-----	-----	----	-----	-----

"논어"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받아들이고 어떤 책인지, 읽고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가가야하는지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되는 책이었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사는 이치나 교육·문화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과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책의 제목인 "논어"라는 의미가 공자와 그 제자들이 '토론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논어"는 겉으로 보면 누구나 접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 삶의 근본을 아우르는 이치를 다루고 있어 동양 철학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책 중의 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동양고전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논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시금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공자와 그 제자들이 토론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할 수 있고, 한 편으로는 다가서기 힘든 주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짚은 접해보고 싶고, 읽어보고 싶은 주제의 책이라서 흥미롭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책 종류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매력있고, 달달한 인문고전 독후감 쓰기 활동 자체가 매마른 삶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것 같다.